

추석 앞둔 소상공인 자금난 지원

제주도·3개 은행·신용보증재단 민생포용 특별보증 협약
150억 특별보증… 소상공인 500곳에 업체당 최대 1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한다.

제주도는 22일 도청 삼다홀에서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민생포용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위성곤 지사, 양근길 신한은행 부행장, 구흥모 하나은행 강서영업본부 지역대표, 박찬순 KB국민은행 제주지역 본부장,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보증은 신한은행 6억원, 하

나은행 3억원, 국민은행 3억원 등 총 12억원의 특별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15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은행이 대출을 실행한다. 제주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대출이자 2.5%를 보전한다.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부터 보증재원이 소진될 때까지다.

4개 기관은 보증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자금 지원과 함께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제주도는 사업 홍보와 대상 기업 발굴을 맡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자금난을 겪는 경영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

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수수료는 기본요율보다 0.3%p 낮은 0.9%를 고정 적용한다. 심사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응용프로그램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져 재단을 직접 찾지 않고 신청부터 심사까지 마칠 수 있다.

제주도는 보증액 3000만원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500여 곳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위성곤 지사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낮은 이자와 수수료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지원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체감경기를 점검했다.

강희만기자

위성곤 지사, 제주시 오일장서 추석 민생 행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명절을 앞두고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경제를 현장에서 살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위 지사는 이날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추석 성수품 가격과 전통시장 체감경

기를 점검하고 시장 현안을 상인들에게 직접 들었다.

위 지사는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장을 보러 나온 도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눴다. 채소와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찾아 추석을 앞둔 가격과 판매 상

황을 살피며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매했다. 이날 구입한 물품은 도내 아동복지시설인 제주보육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인회와 만나 장육(점포) 정비와 주차 환경,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운영 현안을 논의했다. 오소범기자

“추석 연휴 애월서 제주 로컬브랜드 만나요” 도, 24-27일 제주당서 팝업스토어 운영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의 특색을 담은 로컬브랜드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제주시 애월읍 베이커리카페

‘제주당’에서 ‘제주 로컬브랜드×제주당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추석 연휴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에게 제주 로컬브랜드를 알리고, 새로운 소비자를 만나 로컬기업 제품의 시장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제주 로컬기업 가운데 서류와 시제품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참여 기업은 ▷떡 ▷리틀 ▷세화그로서리 ▷술도가제주바당 ▷탄산요름 등 5곳이다.

이들 기업은 감귤과 곡물 등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부터 디저트와 음료, 전통주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산지천 하류 노후 수문 교체 신규 수문·고정보 설치

제주시가 노후화된 산지천 하류 노후 수문을 전격 교체한다.

시는 산지천 일원에 위치한 노후 수문인 용진보 교체 공사를 지난 6월 착공해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산지천은 제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하천으로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 원활한 배수 기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시는 노후화된 수문을 교체해 하천 범람을 사



산지천 용진보.

제주시 제공

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기존 폭 24m, 높이 1.8m 규모의 노후 수문을 철거한 뒤 폭 12m, 높이 1.3m의 신규 수문 1개소

와 폭 6m의 고정보 2개소를 새롭게 설치한다. 또한 공사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물막이와 함께 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오탁방지막을 설치한다. 백금탁기자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기금 조성 본격 도, 내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추진… 어제 지원단 첫 회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를 줄이고 기업의 복지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7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노동계, 사용자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지원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여기업 범위와 기준 ▷기금 조성·운영 방안 ▷참여기업 모집·홍보 방안 ▷법인 설립 절차와 기관별 역할 ▷정부지원금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0월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연내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사업계획과 정관 마련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7년 법인 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기업이 법인을 세워 소속 노동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에 정부지원금을 연계할 수 있다.

제주도는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연계해 기

금을 조성한다. 개별 중소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비 부담을 나누면서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자 간 복지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개별 중소기업의 복지비 부담을 낮추면서 노동자가 체감하는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상생형 제도”라며 “지원단 회의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모델을 구체화해 내년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서귀포시, 노후 재활용도움센터 8곳 시설 보수

서귀포시는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해 재활용도움센터 8개소의 내·외부 시설 보수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수·보강 사업은 2017년

이후 본격 설치된 재활용도움센터의 시설을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분리배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추진했다. 대상 시설은 은평리, 세화2

리, 성읍신문화마을, 남원1리, 의귀리, 천지동, 중앙, 호근 등 재활용도움센터 8개소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신규 2개소(문화광장, 도순동)를 추가로 준공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치,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